

2022년 추석 가정예배순서

신앙고백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408 장 / 다같이

대표기도 / 가족 중에서 혹은 인도자

말씀봉독 / 민수기 21:4-9 / 다같이

4.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6.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8.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말씀나눔 / 인도자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그동안 우리 가정과 가족을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한 서로를 위로하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경험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말할 수 없이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도 그런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약 없이 계속되는 광야 생활에 지치고 짜증이 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광야는 마실 물도 없고 매일 먹는 만나도 질렸고 짜증이 난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런 원망은 마른풀에 번진 불처럼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로 번집

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에 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뱀들이 자신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한 불뱀의 형상을 구리로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구리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세웠고 정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쉽지 않은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아버릴 것 같은 때도 있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는 것으로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짜증은 우리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보니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구리로 만든 뱀을 바라볼 때 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단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나를 도와 줄 사람을 찾거나 내가 피할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피할 곳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올 한해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 도 / 인도자가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찬 송 / 384 장 / 다같이

주 기 도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